



골드키즈 시대
프리미엄 이유식 등
매출 급상승
니



Life

러닝화 중심
풋웨어 시장
성장세
L2



‘도시재생 1호’ 창신동 재개발... 역사·자연 품은 랜드마크로

서울 대표 낙후지역 ‘신통기획’ 확정 640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대변신 열악한 도로 개선, 교통체계 손질 역사·자연과 조화로운 경관 조성

소형 분제공장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철거 대신 보존을 택했던 ‘도시재생 1호 사업지’ 창신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약 6400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역사·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창신동 23-606(옛 창신9구역)과 629(옛 창신10구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로 결정하고,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송인동 56-4



창신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인근을 포함한 총 4곳(약 34만㎡)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원래 창신동 일대는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단지 등으로 재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3년 뉴

타운 지정을 해제하고 이듬해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보존 중심으로 개발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시는 “당시 창신동 일대에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전망대를 만들었으나 현재까지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또한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등 비상 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창신동 일대에 신통기획을 적용, 대대적인 주거 환경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열악한 도로를 개선하고 불합리

한 교통 체계를 손질한다.

구릉지, 한양도성 등의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양도성 일대 지형 차이와 경사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나 필로티, 연도형 상가 등 창의적 건축 디자인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는 양각 규정과 같은 제약 사항을 극복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시는 한양도성, 낙산 등 역사 유적,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영역별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해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체 높이는 낙산(125m) 이하로 설정하고 한양도성과 낙산능선변에는 중저층, 종로와 창신길변엔 고층을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研 “지역특색 살린 매력도시 만들어야”

지역별 문화적 특성 4가지로 유형화 신 유형 통해 도시 방향성 생각해야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지역 특색을 강화해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펴낸 정책리포트 제408호 ‘서울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 서울의 일상공간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는 도시공간의 활력을 저해하고 쇠퇴를 불러올 수 있

는 위험 요소”라며 “서울의 경우 상주인구가 줄면서 지역의 활력 감소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소비 여건을 갖춘 곳이 더 강력한 인구유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상주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유동인구를 증대시켜 지역의 활력을 키우는 매력적인 도시공간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문화 소비가 현대 도시의 특징과 경쟁력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문화 소비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 싼 분석 방법론을 적용, 서울의 공간별 문화적 특징을 조사했다.

도시 싼은 지역 내 특정 공간에서 발

견되는 강렬한 문화적 특성을 의미한다. 도시의 문화 소비 행태는 특정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도시 싼은 이러한 장소를 계량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싼 유형의 조합을 통해 서울의 문화적 특징을 ▲보헤미안 ▲상업 및 기업 지역 ▲고급 근린 지역 ▲합리성 지역 총 4개로 유형화했다.

연구진은 “도시 싼을 분석하면 어떠한 싼이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 확인 가능하다”며 “이러한 비교를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 공간의 방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동덕여대 시위에 학교측 “폭력 책임 물을 것”

재학생, ‘공학반대’ 수업거부 시위 학교 “정식안건 아니... 폭력사태 비통”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학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사안일 뿐,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잠시위’ ‘이사장 흉상 훼손’ 등 학생 반발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학교 측은 “폭력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13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전날 김명애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학교가 ‘밀실에서 공학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대학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위는 지난 11일 학생들이 학교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를 벌이며 시작됐다. 이에 앞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동덕여대 본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올라왔고,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시위를 시작했다.

대학 측은 “공학 전환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이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i@

‘K-뷰티엑스포’ 성료... 수출상담액 7배↑

지난 7일부터 사흘간 킨텍스에서 열려 베트남시장서 K-뷰티 제품 인기 증가

킨텍스는 13일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K-뷰티엑스포 베트남 & 사이공뷰티쇼 2024’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총 120개 기업이 137개 부스로 참여해 베트남 시장에 K-뷰티의 위상을 알렸다. 참가객은 6500여 명으로 전회 대비 약 130% 증가했으며,

초청 바이어도 230개사로 280% 확대되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수출상담액은 6,846만 달러로 지난 행사 대비 7배 상승했으며, 계약 추진액도 3273만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 K-뷰티 제품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와 킨텍스는 행사에 참가한 경기도 기업 60개사에 부스 참가비 지원, 통역 서비스, 운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종량제폐기물 190t 감축

서울시는 올해 1~8월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강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확대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을 하루 190t 감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벌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업장 332곳을 추가로 발굴, 그동안 공공 처리했던 폐기물을 자체 처리로 전환하면서 종량제 폐기물을 줄였다. 중구와 송파구 등 6개 자치구는 수거 체계를 구축해 커피박 재활용 환경을 조성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1 | 해질 / 17:22

11월 14일 (木)
음력 : 10월 14일

수도권 날씨
11~18℃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8/17, 동두천 9/17, 가평 6/17, 파주 8/17, 서울 11/18, 양평 8/17, 인천 12/17, 수원 12/18, 용인 12/18, 평택 9/18, 백령도 13/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3선 자격 승인에 “더이상 긍정성·자정능력 기대 안 해”
▲손흥민 합류한 축구대표팀, 쿠웨이트와 5차전 앞두고 훈련 /사진 뉴스스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미술품 10점 중 2점 진품보증서 없다
▲“디지털로 화이팅, 식사로 힐링” 호텔가, 대입 수능 이벤트 풍성



▲고승범·에드가·이기혁·조현우, K리그 10월 이달의 선수상 경쟁
▲프로축구 강원 윤정환 감독, 최초 한 시즌 3회 ‘이달의 감독상’ /사진 뉴스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